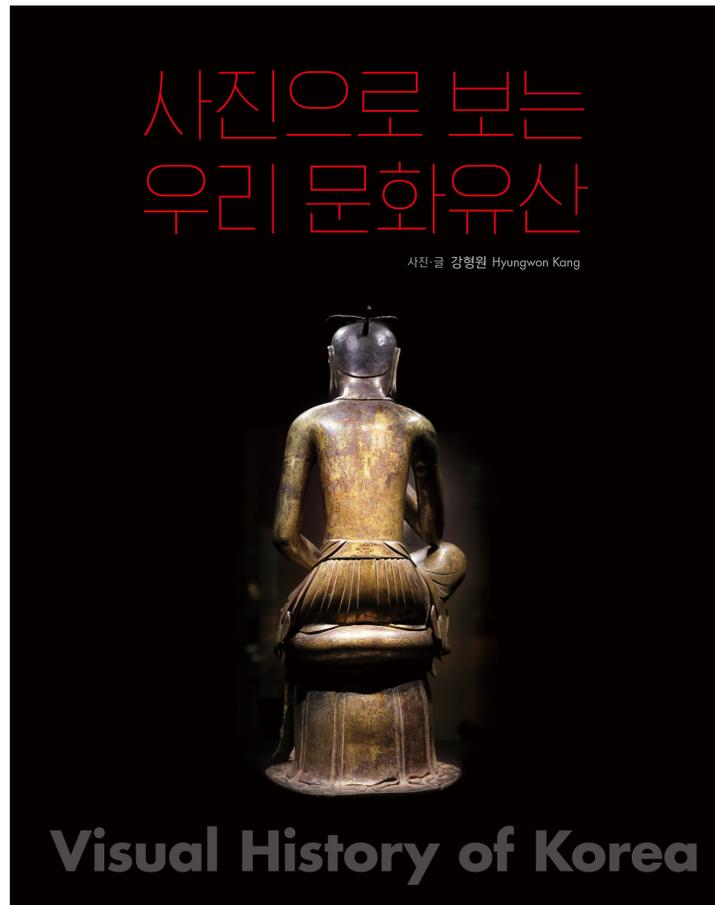


[2022-48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2.9.23(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O)/323-775-7557(C) /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 한국문화원,

“사진으로 알리는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특강 개최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과 미국 거점 세종학당은 9.27(화) 저녁 8시 LA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LA 출신으로 미 주류 언론 사진기자로 오래 활약하며 언론계 최고 권위의 '폴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던 한인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를 초청하여 LA세종학당 수강생 대상으로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Visual History of Korea)'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형원 기자는 33년간 LA타임스·AP통신·백악관 사진부·로이터 통신에서 사진기자와 에디터, 시니어 에디터로 일하며 LA 4-29 폭동,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스캔들, 9-11 테러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취재했고, 언론계의 대표적 상인 폴리처상을 두 차례(1993·1999)나 받은 유명 포토저널리스트이다.

강 기자는 2년 전부터 한국에서 한글과, 영어, 사진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기록을 미주 한인 신문과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연재해왔는데, 그동안 다뤄온 65여 개의 문화유산 가운데 25개를 엄선해 사진과 글로 설명해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강 기자는 "언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만국 언어인 비주얼 매체 사진과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3가지로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설명해 한국의 찬란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며, "문화유산의 겉모습을 판에 박힌 듯 찍어 낸 뻔한 사진이 아닌, '비주얼 스토리텔러'로서 남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유산의 참모습과 그 속에 축적된 이야기를 미 현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사진이란 단순히 세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움직임을 담은 통로라고 하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현지인들이 생동감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